

KIA 전상현, 1억4000만원 최원준 1억3000만원 계약

나지완, 2억원 삭감 4억원...53명 계약 마무리



전상현



최원준

KIA 타이거즈 투수 전상현이 데뷔 후 처음으로 1억원대 연봉을 받았다. KIA는 27일 2021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53명과 계약을 마무리했다. 재계약을 한 선수 가운데 인상자

는 27명이며, 동결 7명, 삭감 19명이다. 전상현은 76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84.2% 인상됐고, 박준표는 1억1000만원에서 45.5% 오른 1억6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정해영은 2700만원에서 7000

만원으로 올라 구단 최고 인상률(159.3%)을 기록했으며, 홍상삼도 4000만원에서 125% 오른 9000만원에 계약했다.

내야수 최원준은 7000만원에서 85.7% 오른 1억3000만원에 재계약했고, 유민상은 6000만원에서 4500만원(75%) 오른 1억5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전상현은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역대 연봉을 받게 됐고, 최원준은 2년 만에 역대 연봉에 복귀했다.

김명찬(3500만원)과 심동섭(8000만원), 김유신(3000만원)은 지난해와 같은 금액에 재계약을 마쳤다.

외야수 오선우는 지난해보다 400만원 오른 3400만원에 재계약했고, 이우성도 100만원 오른 4100만원에 계약을 마쳤다.

FA 계약기간 만료로 올 시즌 연봉 계약을 새로 한 나지완은 지난해 6억원에서 2억원 삭감된 4억원에 사인했다. **뉴시스**

KIA 타이거즈, CI·유니폼 변경

우승 명문 구단 위상·전통 계승...원정 검·빨 유니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구단 CI(Corporate Identity) 및 유니폼에 새로운 'KIA' 로고를 적용하고, 색상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KIA는 CI 색상과 디자인 변경을 통해 한국시리즈 11회 우승 명문 구단의 위상과 전통을 계승하고 승리를 향한 진취적 의지를 담았다.

엠블럼의 KIA 로고는 균형과 리듬, 상승의 의미를 담은 새 로고가 적용됐다. 홈 베이스와 승리(Victory)를 상징하는 'V' 문양으로 조합된 엠블럼의 바탕 색상은 검은색으로 변경했다.

엠블럼의 워드마크는 종전보다 채도가 향상된 빨간색을 적용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세련되고 미래 지향적인 구단의 진취성을 나타냈다.

특히 빨강과 검정이 이루는 강렬한 대비는 선수단과 팬의 뜨거운 열정을 상징하는 동시에 KBO리그 최고 명문 구단의 정통성을 표현했다.

KIA는 유니폼과 모자도 새 CI 색상을 적용해 변경했다.

먼저 홈 유니폼의 워드마크는 새 KIA 로고와 함께 검은색으로 바꿨다. 배변과 유니폼 뒷면에 승리를 상징하는 V 라인도 '타이거즈 미드 나잇 블랙' 색상을 적용해 강렬함을 표현했다.

원정 유니폼은 과감한 면 분할과 함께 주 색상을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변경했다.

모자와 언더 티셔츠, 벨트의 색상은 홈과 원정 유니폼 모두 '타이거즈 라이브 레드'로 통일해 일체감을 줬다.

한편 KIA는 새로운 CI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뉴시스**

美 언론 "추신수, 내셔널리그 DH 없으면 은퇴?"

지명타자 제도 반쪽 시행시 입지 좁아질 듯



2021년 메이저리그(MLB)에서 지명타자 제도가 다시 반쪽만 시행된다면 자유계약선수(FA) 추신수(39)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

미국 CBS스포츠는 27일(한국시간) FA 선수들의 어울리는 팀을 선정했다.

매체는 추신수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어울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명타자 제도 시행에 따라, 추신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S스포츠는 "메이저리그 전체가 지명타자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추신수는 은퇴를 강요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신수는 2019년까지 한 해도

클럽하우스의 리더였고, 생산적인 타자였다. 그러나 더이상 수비를 하지 못하고, 38세의 추신수는 큰 관심을 받는 선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추신수는 텍사스에서 된 경력 있다. 추신수를 지명타자로 기용할 수도 있다. 텍사스의 젊은 선수들을 상대로 추신수보다 멘토링을 잘 할 선수는 없다"고 했다.

현재 메이저리그는 지명타자 제도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내셔널리그는 지난해 지명타자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종전대로 아메리칸리그만 지명타자 제도를 시행할 경우, 추신수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메이저리그 선수노조에서는 지명타자 제도 확대를 거부하고 있다.

김시우, 파머스 인슈어런스 PGA 연속우승 도전

지난주 3년 8개월만에 우승...대회 파워랭킹 15위 올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시우(26)가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김시우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라호야의 토리 파인스 골프클럽 남코스(파72)에서 열리는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총상금 750만 달러·우승상금 135만 달러)에 출전한다.

지난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3년 8개월 만에 감격의 우승을 차지한 김시우는 이번에도 우승을 겨냥하고 있다. 통산 4번째 우승 도전이다.

김시우는 대회 파워랭킹에서 15위에 올라 선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시우는 최근 안정감 있는 쇼트 게임과 정교한 퍼트가 돋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찾은 것이 큰 소득이다. **뉴시스**

김시우와 함께 최경주(51), 임성재(23), 안병훈(30), 강성훈(34), 노승열(30), 이경훈(30) 등이 출전해 자웅을 겨룬다.

임성재는 파워랭킹 13위로 주목받고 있다.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와 브룩스 캠퍼(미국) 등이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세계랭킹 7위 매길로이는 지난주 유러피언 투어에 출전해 컨디션을 조절했다. 매길로이는 2019년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공동 5위, 2020년에는 공동 3위에 오른 바 있다.

대회를 앞둔 캠퍼는 무릎 부상 등에서 완벽하게 회복했다면서 "더이상 변명은 없다"고 투지를 불태웠다.

디펜딩 챔피언 마크 레시먼(호주)은 2년 연속 우승을 노린다.

대회는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열리며, 36홀 진행 후 공동 65위까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뉴시스

고교생 농구 국가대표 여준석 "프로 조기 진출이요?"

내달 FIBA 아시아컵 예선 첫 성인대표팀 엔트리 포함
부드러운 슈팅 지닌 203cm

"주위에서 거짓말하는 줄 알고 믿지 않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용산고 3학년 1학을 앞둔 여준석(19·203cm)이 생애 처음으로 성인 남자 농구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김상식 감독은 내달 열리는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예선을 앞두고 여준석을 12명 엔트리에 포함했다. 유일한 고교생이다.

김 감독은 "아리지만 오래 전부터 꾸준히 지켜본 선수다. 당장 어떤 모습을 기대하기보다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주로 여러 경험을 하는 게 긍정적일 것 같다"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여준석은 "개인 운동을 마치고 휴대폰을 봤더니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와 있어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통화했더니 친구들이 '너 대표팀에 뽑혔다'고 하더라. 거짓말인 줄 알고 안 믿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고 했다.

국제농구연맹(FIBA)은 여준석의 첫 성인대표팀 발탁을 주요 소식으로 다뤘다.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중학교 2학년 때인 2016년 전국소년체전 결승전에서 50점 34리바운드를 터낸 만화같은 기록을 작성했다.

맨발 신장이 203cm로 적수가 없었다. 2017년 KBL 엘리트캠프에 참가해 최우수선수(MVP)상을 받았고, 같은 해 미국프로농구(NBA) 유망주 초청 프로그램인 아시아 퍼시픽 캠프에 참가했다. NBA 사무국이 여준석의 참석 여부를 체크할 만큼 '거물'이었다.

여준석은 "연령별 대표팀은 해 봤지만 성인대표팀은 처음이다보니 많이 긴장된다. 솔직히 농구를 하면서 '언제 처음 태극마크를 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정말 빠르면 대학교 3학년, 아마도 프로에 가거나 대표팀에 뽑힐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반반이다. 정말 기쁘지만 긴장도 많이 된다"고 했다. 여준석은 2019년 호주에 있는 NBA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시간을 보냈다. 현재 미국 대학에서 활약 중인 이현중(22·데이비스대)과 함께 했다.

그는 "처음에 가서 적응을 하지 못했다. 그동안 몰아보지 못했던 나보다 크고, 힘 좋은 친구들과 대결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면서도 "지금 돌아보면 정말 큰 경험과 도움이 됐다. 부모님 없이 혼자 지냈던 외롭진 않았다. (이)현중이 형이 있었고, 이집트, 나이지리아 친구들도 즐겁게 지냈



다.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친한 예들이"고 했다.

여준석은 큰 신장 때문에 원래 센터를 맡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포워드형 선수로 성장하고 있다. 훈련의 80%를 슈팅에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준석은 "호주에 가기 전에는 단순히 웨이트트레이닝에 집중했지만 슛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훈련에 변화를 줬다"며 "장기적으로 3번(스몰포워드) 포지션을 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세범 용산고 코치는 "호주에 다녀온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골밑 플레이와 외곽의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가기 전에는 외곽 플레이에 어색한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항상된 게 눈에 보인다"고 했다.

물모듬을 물었다니 욕심을 드러냈다. "스타일이 제각각이지만 잘하는 형들의 장점을 조금씩 다 배우고 싶다"며 "김종규(DB) 형의 운동 신경, 송교창(KCC) 형의 플레이 스타일을 닮고 싶다. 또 양홍석(KT) 형은 그냥 멋 있다. 그런데 '남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은 이승현(오리온) 형 같다"며 웃었다.

김종규(DB)와 이승현(오리온)은 이번 엔트리에 포함됐다. "승현이 형은 픽업 경기에서 잠깐 봤는데 '한국에 오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하셨다. 허

훈(KT) 형은 인터뷰하는 것을 지나가다가 슬쩍 봤는데 정말 기대된다. 다른 형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대단한 형들과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요즘 많이 설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고, 감독님이 시키는 걸 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고 싶다. 물모듬 열심히 건넬 것이다"며 "잠깐이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면 리바운드면 리바운드, 수비면 수비 뭐든 지시를 따르기 위해 집중할 것이다"고 했다.

프로 구단들은 초고교급 기량을 갖춘 여준석의 행보에 관심이 많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프로 무대에 노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 진출한다면 다음 시즌부터 KBL에서 볼 수 있다.

고교 졸업 후 프로에 진출한 송교창, 서명진(현대모비스)과 대학 1학년만 마친 양홍석이 리그 주축 선수로 자리 잡으면서 고졸 선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역대 최초로 차민석(삼성)이 고졸 1순위 지명을 받았다.

여준석은 "아버지와 가끔 대화를 나누지만 바로 프로에 갈지, 대학을 거칠지 잘 모르겠다. 해외에 도전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았다"며 "결국 내 인생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